## 이번엔 나주 유원지서 안전불감증

# 번지점프 줄 끊겨 30대 추락사

나주의 한 유원지 시설에서 번지점프(bungee jump)를 하던 30대 남성이 로프가 끊겨 30여m 아래로 추락해 숨지면서 번지점프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번지점프장은 지름 1~1.5cm 줄 하나에 생명을 의지한 채 30여m 높이를 뛰어내리는 위험천만한 레포츠 시설이지만, 아직까지 신고 업종으로 분류돼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고 발생**=5일 오후 1시30분 나주시 다도면 병산리 '나주호 번지 점프장'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박모(37)씨가 27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박씨는 사고 당시 발에 묶여 있던 길이 5.7m, 지름 1~1.5cm의 고무줄 수십 가닥으로 된 로프가 끊기면서 바닥 아래로 떨어졌다. 박씨는 공기 매트 모서리 부분에 떨어진 뒤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사고가 난 번지점프의 줄 길이는 와이어로프(20m)와 신축성이 있는 5.7m의 고무줄로 이뤄졌다.

제약회사 직원인 박씨는 이날 친구 2명과 함께 놀러왔으며, 내장객 가운데 세 번째로 번지점프를 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원인…예고된 '인재'**=이번 추락사고는 번지점프장 운영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 때문에 발생했다. 번지점프 운영규정상 ▲30~50㎏ ▲50~70㎏ ▲70~90㎏ ▲90~120㎏의 몸무게에 따라 로프 사용을 달리해야 하지만, 업체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했다.

몸무게 80㎏인 박씨에게 50~70㎏의 몸무게를 지닌 사람이 이용하는 로프를 사용해 뛰어내리게 한 것이다.

또 검증된 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던 점도 사고를 부추겼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로프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미국 스포츠'와 '캐나다의 BIC' 제품. 이 회사에서 제작된 로프의 경우 라텍스가 끊기더라도 줄 안에 안전줄이 또 하나 있으며 평균 500회 이상 사용할 경우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호 번지점프장'에서 사용된 줄은 말레이시아 한 회사에서 제작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호 번지점프장'은=올해 J리조트와 부지임대 계약(3년)을 맺고 지난 4월 25일부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번지점프장 높이는 27m, 규격은 4m×4m. 주 고객은 J리조트를 찾는 이들이 대부분이며 현재까지 100여명이 이용했다.

◇**제도적 허점**=번지점프는 현행 법상 신고업종으로 분류돼 시설물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제도적 허점을 안고 있다.

건축물 증축신고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서 시설물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나주시 한 관계자는 "각종 놀이시설은 관광진흥법을 적용받아 시설안전성을 확인하지만, 번지점프장은 안전성을 점검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고 방지를 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경찰은 ▲운영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와이어로프 노후화 ▲업주의 번지점프 마스터 자격증 취득 여부 ▲공기 매트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사고 번지점프 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하는 등 제반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업체 대표인 신모(37)씨 등을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 입건할 예정이다.

또 신씨와 부지임대계약을 맺은 J리조트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5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나주시 다도면 J리조트 내 번지점프장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고 직후 업주는 관련 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이용료를 환불했다. /나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부시 방한에 쇠고기 반대 촛불 재점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5일부터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등 그동안 주춤했던 촛불집회가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미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도해 온 영·호남 시민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 등 공동 행보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시 방한 반대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목포와 여수·순천·나주 등 전남지역 10개 시·군에서도 촛불집회가 열렸다.

한편,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는 6일 오후 5시께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광주시 서구 모 마트에서 미 쇠고기 판매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여중생 2명 납치범 하룻만에 검거

광주에서 여중생 2명이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밤샘 수사를 벌인 끝에 납치 용의자들을 모두 검거했다.

그러나 여중생들은 경찰에서 납치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용의자들을 따라갔다고 진술했다.

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4일 오후 9시께 고등학생 김모(16)군이 "광주시 북구 광주역 앞에서 A(15)양 등 여중생 2명이 20대 남성 3명이 탄 투싼 승용차로 납치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날 오전 7시5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교회 앞에서 용의 차량을 발견하고 잠복 끝에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인 오모(20)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오씨를 추궁해 인근 여관에 투숙해 있던 김모(20)씨 등 공범 2명도 함께 검거했다.

A양 등 여중생들은 신고자 김군 등 남자친구 2명과 함께 지난달 말께 가출해 찜질방과 모텔 등을 전전하다 대구와 전주 등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마련하기 위해 광주역에서 앵벌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광주역에서 이들을 만나 '고속버스 요금을 주겠다'며 투싼 승용차로 김군 등 남자친구 2명을 먼저 버스터미널에 데려다 준 뒤 A양 등을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했으며, 김군 등은 여자친구들이 오지 않자 경찰에 납치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에 붙잡힌 김씨 등은 지난 6월 21일 새벽 1시 20분께 나주시에서 투싼 승용차를 훔친 뒤 이 차를 이용해 4차례에 걸쳐 부녀자 상대 날치기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도박사이트·사행성 게임장 잇단 철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업자와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자 2명이 경찰에 잇따라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5일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속칭 '바둑이' 포커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접속자로부터 딜러비 명목으로 6천600여만원을 챙긴 문모(27)씨를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를 이용한 접속자 40여명이 지난 4개월간 배팅한 금액이 12억원 상당으로 추정하고 있다.

목포경찰도 이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김모(42)씨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부터 목포시 옥암동 게임장에 컴퓨터 37대를 갖춰놓고 사행성 게임인 '백경' 프로그램을 설치해 415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5월 영령 곁에 묻히고 싶다는 소원 대신…

## 5·18 알린 美 돌린저씨 기념비 건립 검토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외신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도와 5·18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미국인 데이비드 돌린저(David L. Dolinger·55)씨의 기념비 건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5일 "최근 5·18기념재단 측이 돌린저씨가 죽으면 5·18민주묘지에 기념비를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연구회사 부사장인 돌린저씨는 재미 한인교포를 통해 자신이 죽으면 5·18 민주영령들 곁에 묻히고 싶다는 의사를 5·18기념재단 측에 이메일로 타진해 왔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시신 매장 대신 돌린저씨의 공적을 알릴 수 있는 기념비나 소장품을 묘지 내 기념관에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돌린저씨에게 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돌린저씨는 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5·18묘지에 묻힐 수는 없다"며 "하지만 5·18단체들이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겠다면 시민 여론을 수렴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운'이라는 한국식 이름도 갖고 있는 돌린저씨는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외신 기자들의 통역을 맡아 취재를 돕거나 병원 등지에서 부상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기도 해 5·18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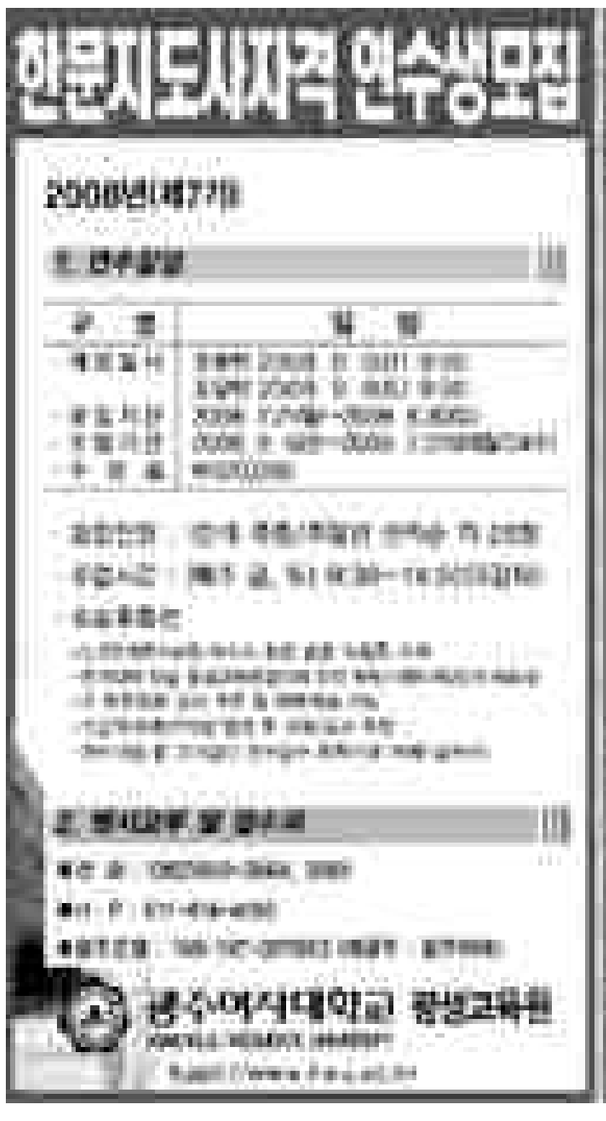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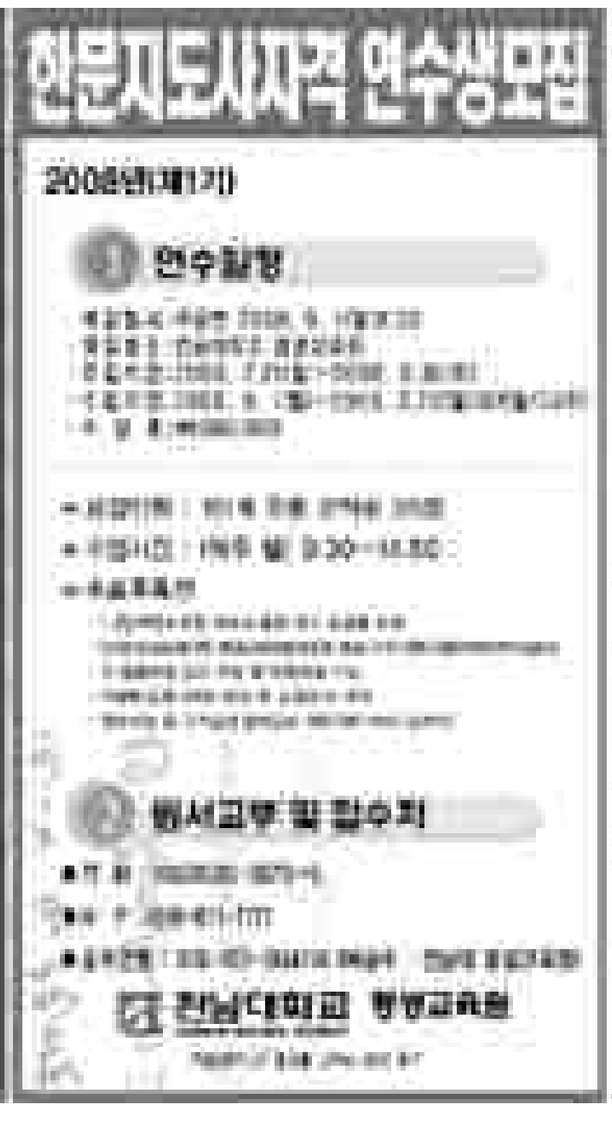
나우찬 〈7575〉 김종두

### 통신회사 기지국 접지선 훔쳐

쌍나팔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통신회사 기지국에 침입해 낙뢰방지용 접지선을 훔친 최모(41)씨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께 광산구 산막동의 한 야산에 있는 모 통신회사 기지국에 들어가 구리로 된 낙뢰방지용 접지선 30m(시가 64만원 상당) 가량을 훔친 혐의.

○…최씨는 최근 1년새 네 차례나 접지선을 도난당한 통신회사 측이 설치해 둔 무인경보시스템의 경보음을 듣고 출동한 회사 직원들에게 붙잡혔지만, 이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다 도주.

○…경찰은 그러나 산 밑에서 최씨가 세워둔 오토바이를 발견, 소유자를 추적해 최씨를 붙잡아 여죄를 캐고 있으나 최씨는 범행 일체를 완강히 부인. /강필상기자 kps@